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 창립총회 자료집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1:00

장소 : 수원 교구청 지하 대강당

공생공빈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은 전 우주에
그리고 당신의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부드러움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당신 사랑의 힘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어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호하게 해주소서.

저희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우시어
당신 눈에 너무나도 고귀한 이 땅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제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어
땅을 먹이로 삼지 않고 보호하게 해주소서.

오염과 파괴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씨를 뿌리도록 해주소서.

가난한 이들과 땅을 희생시켜 가며
이익만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소서.

당신의 무한한 빛을 향해 가는 저희를 가르쳐 주시어
하나하나가 지닌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소서.

경외와 명상으로 가득하게 해주소서.

저희가 온갖 피조물과 깊이 결합해 있음을 깨닫게 해주소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격려해주소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면서 기도합니다.

축 사

✝ 찬미예수님

친애하는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부터 여러분이 공동체 운동으로 전개해 온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태동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톨릭 복음화의 가치에 입각하여 인류의 절박한 과제인 환경과 생태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로 생명 사회와 사회 복음화,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교회는 교회적 운동을 사회적 운동으로 저변 확대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단체로 등록함으로써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와 같은 국가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통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운동이기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지금까지 사회사목을 통하여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를 통합하는 차원의 장치가 부족했기에 이 운동을 통하여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특히 사회사목 비전연구팀을 비롯한 본당 공생공빈, 협동조합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을 간구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격려사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생공빈이라는 말은 좀 생경한 낯선 단어라는 느낌이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상호의존적인 생존의 모습을 압축한 생명 공동체의 사상을 함축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밀알 협동조합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고 싹이 트며 풍부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생태계의 순환과 조화로운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힘을 모으고 연대하여 함께 생명 사회를 만들자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즈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태와 환경 회칙이라 일컫는 「찬미를 받으소서!」(Laudato Si')를 발표하시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인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환경, 생태위기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것이기에 그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십니다. 우리 수원 교구도 지난 10월 심포지엄을 열어 교황님의 가르침과 지침에 따른 우리의 응답에 대한 과제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은 무엇보다 인류의 절박한 과제인 환경과 생태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로 생명 사회와 사회 복음화,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선을 추구하기위한 조합원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또한 생명 사회와 사회 복음화를 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그 연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과 책무가 잘 이루어져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할 수 있는 참 생명 사회와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2015년 12월 21일

前 성남 대리구장 조원규 야고보 신부

교구 설정 50주년 비전 핵심 과제

-사회 복음화 분야 점검-

사회 복음화 및 사회 사목 활성화 시스템 구축

- 가. 사회사목 활성화와 전망을 위한 사회사목 편람 제작
- 나. 사회사목 전문인 양성 계획과 물적 자원 마련
- 다. 다각적이며 종합적 사회사목 계획과 물적 자원 마련
- 라. 협동조합 시스템 활용

사회사목위원회 비전과 핵심 과제

수원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정책분과 미래복음화 위원회 소속 사회복음화 소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 사항은 사회사목 활성화와 전망을 위하여 사회사목 편람 제작과 인재양성 시스템구축, 그리고 사회사목 센터와 연구소의 필요성과 그 기능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사목 편람 제작과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은 실제 사회복음화국 소속 각 위원회와 함께 연구 제작을 실제적으로 진행하며 교구 인사 위원회와 함께 사회복음화 인재양성소위원회 시스템을 도입하며 몇 가지 일관성 있는 원칙을 제안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회사목 활성화와 전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은 사회사목을 실천하고 교육하는 센터와 그 전망을 지속적 화하는 연구소 기능을 설립하는 것인데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각 위원회 별로 그 기능과 형식을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만들어 사회사목의 전망을 추구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50주년 사회복음화 소위원회는 사회복음화에 관한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복음화 활동에 대한 연구 및 역사 자료 정리, 그리고 사회사목에 대한 비전과 함께 목표와 실천, 연대, 홍보, 안내, 조사, 기금 조성 등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위한 이러한 사회사목 센터와 연구소의 필요성과 함께 그 실행을 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위해 교구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직자, 평신도들과 함께 그 전망을 열어주고 다양한 루트와 통로로 그 기능과 형식을 갖추고 이끌어 가도록 교구 시스템과 행정 지원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 식순

1. 국민인례
2. 준비 위원장 인사말(내빈소개)
3. 축사 (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
4. 격려사 (前 성남대리구장 조원규 아고보 신부님)
5. 설립 추진과정 설명
6. 임시의장 선출
7. 정관 심의
8. 임원선출, 회칙통과
9. 사업계획서 심의
10. 수입과 지출 예산안 심의
11. 기타 안건 심의
12. 이사장 인사
13. 마침기도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가안)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가톨릭 복음화 가치에 입각하여 자주·자립·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영성과 복리를 증진하고 상부상조 및 인류의 절박한 과제인 환경과 생태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로 생명 사회와 사회 복음화,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조합원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조합은 생명 사회와 사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그 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및 제주도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8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2. 지역주민의 고충상담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환경 및 생명 문화와 사회복음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연구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지원 사업
5. 이주민 자립지원, 긴급 위기 사례지원 및 본국 귀환 프로그램 운영 사업
6. 생명·기부 문화 사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업무협약 등으로 위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2. 아나바다 사업(아세안 마켓)
3. 카페사업(취약계층 고용)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5.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7. 국내외 의료·환경·생명 관련 사업
-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④ 이 조합이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주민이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제59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8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5,000,000원으로 한다.
-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8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제60조(생명·기부문화 사업) ① 조합은 조합원의 물적자원, 인적자원 등을 기부받아 생명문화를 형성한다.

② 조합의 기부는 정기 후원금, 일시 후원금, 유언 후원금 등의 물적자원 기부와 재능기부 등의 인적자원 기부로 구분하며, 조합은 기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

③ 조합의 생명·기부문화 사업은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의 사회복음화국 자원 네트워크 사업 및 생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④ 조합은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의 각 본당 교회 공생공빈 밀알 공동체와 연계하여 기부 사업을 활성화한다.

제61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아나바다 사업(아세안 마켓)
2. 카페사업(취약계층 고용)
3.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의료·환경·생명 관련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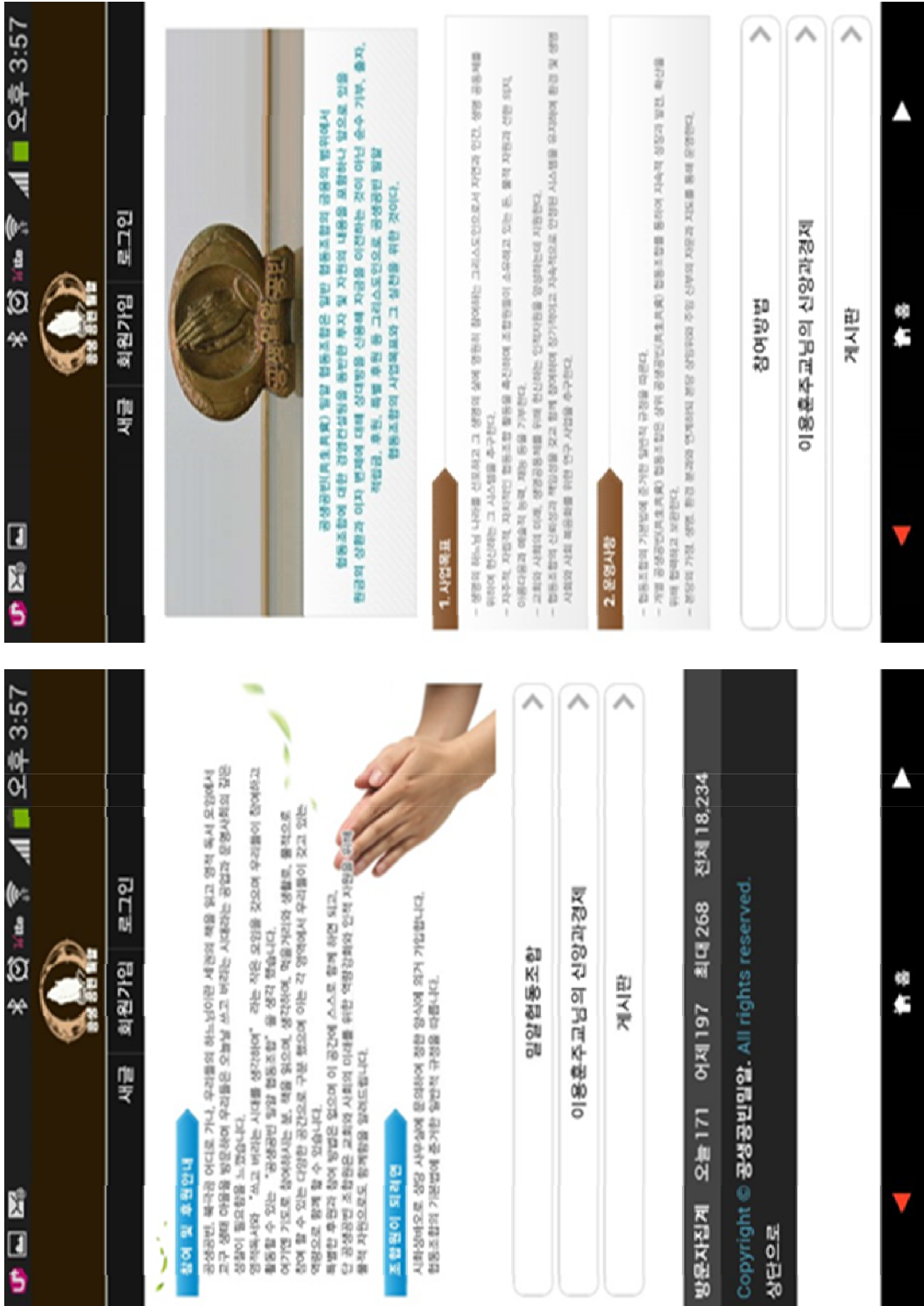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생공민 밀알 홈페이지 (http://ggma1.com)

H.P.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 「Play 스토어」 접속 후 「공생공민밀알」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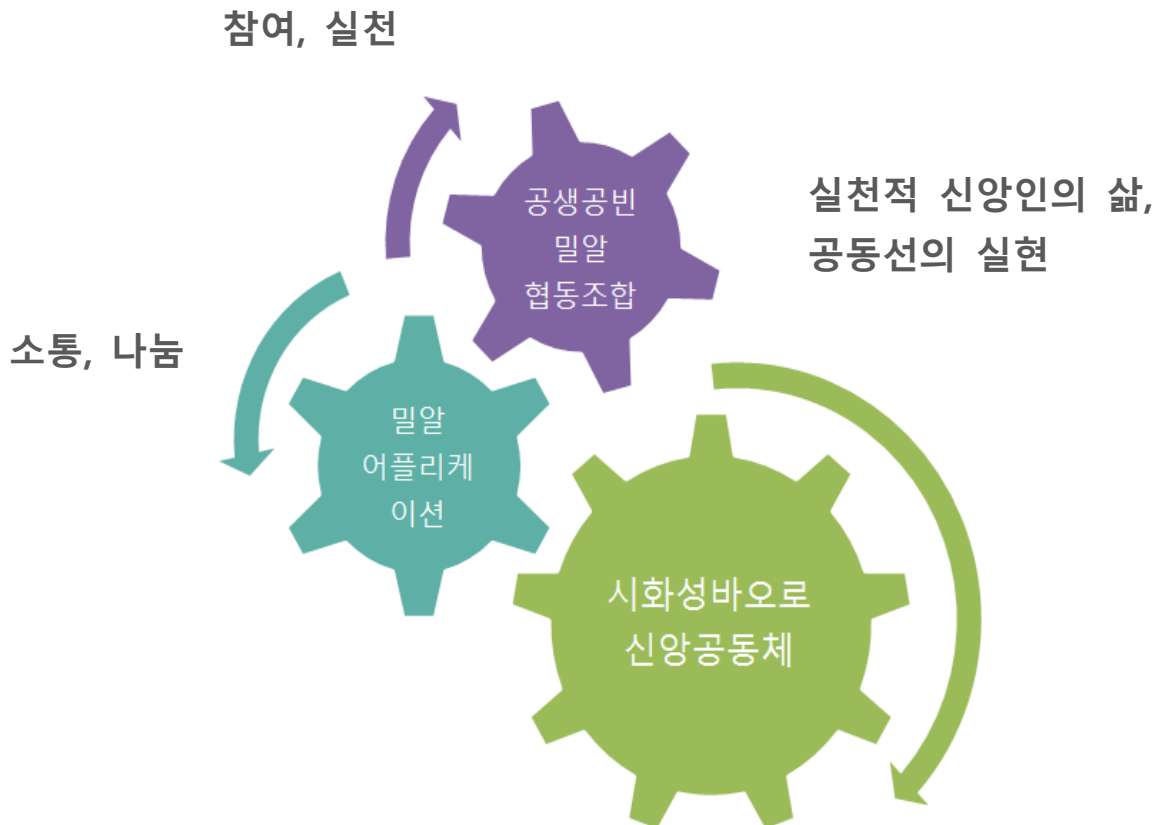
신앙생활 생명공동체 실천운동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신앙생활 생명공동체 실천운동으로서의 ‘밀알’



이렇게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본당에서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에 초대된 것은 나태하고 느슨해진 나를 채찍질 하시어 일깨워주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었어요. 일회용 종이 컵을 쓰지 않는 것으로, 주님의 피조물인 나무를 베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우리차를 음미하는 즐거움과 일회용 컵에 든 합성수지와 염화비닐을 먹지 않게 해주시어 발암성 물질과 환경 호르몬 성분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벼룩시장을 준비하며 얼마나 많은 물건이 나를 위해 존재했는지, 만든 생산자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에 감사했는지 반성했습니다. 번거로움에도 정든 물건들을 기꺼이 기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조미선 실비아(시화바오로 성당)

본당 금요 사순 특강에 참석하여 영상을 감상했어요. 큰 물고기의 90%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과 우리 인간은 자연을 자원으로만 생각한다는 사실이 제겐 충격이었어요. 생명공동체 운동과 쓰고 버리는 소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는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강한 실천 의지가 솟구쳤지요. 우리 본당 신자들은 개인 컵이나 작은 물병 지참하는 실천 캠페인이 생활화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집에 와서도 잠이 오지 않아 충격받은 강의 내용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훌륭한 강의 해주신 신부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화바오로 성당)

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공동체 운동입니다. 협동조합 운동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나눔과 사랑의 가르침을 잘 담아낸 생산자-소비자의 공동체 운동이고,

조직력과 인적자원 등을 갖춘 교회가 이 시스템을 잘 키워 나간다면 복음화의 파급효과도 더 커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차원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된다면 청년들에게도 일거리 창출에 도움을 주며, 삶의 의미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성당이라는 복음적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영성에 대한 갈망에 대해 교회가 판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 사단법인 푸른평화 생협 대표 정홍규 신부(대구대교구 산 자연학교 교장)

본당 공동체도 어떤 의미로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합니다. 본당 공동체는 신자 혼자서 운영 할수 없는 주일학교 교육이나 신앙교육, 때때로 이루어지는 본당의 행사, 환자방문이나 이웃 간의 협력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생공빈 밀알협동조합은 복음 정신으로 생명과 환경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설립되며, 본당 울타리를 넘어서 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부를 받아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공생공빈 밀알협동조합에서는 우선 생명과 환경을 위해 일할 일꾼을 교육하고 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 기후변화 현상에 대처하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경환 대건 안드레아 신부(안산 성 요셉 성당)

공생공빈 밀알과의 만남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으랴.

‘밀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공생공빈 밀알 홍보 동영상 제작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체 구성안을 짜고, 내레이션 원고를 쓰는 작업이었다. ‘공생공빈, 함께 살고, 함께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묵상했다. 밀알 어플리케이션에 회원 가입을 하고, 교구 설정 50주년 사회사목위원회 비전과 핵심과제를 비롯해서 우리농과 밀알협동조합, 쓰고 버리는 시대의 모임, 영적독서 모임, 시화바로로 성당 생명 실천 운동 등 나에게서 조금 생경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누구나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영상의 제목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였다.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성찰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시화바로로 공동체에서 다양한 연구와 실천 방법들이 행해지는 동안, 난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나눔과 베품의 실천을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생명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영상의 제목은, <공생공빈, 지상의 진복팔단>으로 정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자연, 온갖 피조물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이곳’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참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생공빈 밀알의 오늘이 있기까지 종자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큰 내디딤이 아닌, 몇 사람의 작은 실천이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실천하면 위대한 순교자들의 공로보다도 큰 사랑이 된다 했던 소화 데레사 성녀의 말씀처럼 말이다. 대본을 쓰는 내내 참회의 빛이 쏟아졌다. 한 때, 하나님의 주도권에 예속되기보다, 내 힘만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투영되면서 남보다 더 앞서고, 높아지고, 커지기 위해 몸부림쳤던 탐욕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원가를 소유하려 했던 무자비함이 내 몸과 영혼을 망가뜨렸다는 자성도 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성체 예수님을 대면해야 했던 광야의 시간. 구유와 성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나는 그 생명의 존

귀함을 귀히 여기지 못했구나 하고 자책할 뿐이었다. 오랜 시간, 그분 앞에 머물며 새로운 생명을 부여 받았고, 예전의 힘없는 생명이 아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 2,20)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덤으로 얻은 생명,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것이 아님을, 이 세상엔 내 것이 없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공생공빈. 함께 살고 함께 가난해지는 것. 어느 봉쇄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뛰어도 하느님만이 모든 것이예요. 조금씩 적게 가지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전부이신 하느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좀 가난해져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태만함을 직시하게 해준 공생공빈 밀알과의 인연은 바쁘고 귀찮다고 뒤로 미뤘던 것들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충 했던 분리수거와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습관을

바로 잡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엄마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것도 하느님을 대하듯 정성과 사랑을 다해 실천해보았다. 예전 같으면 버렸을 쓸 만한 옷과 신발, 전기제품, 성물 등을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바자회에 내다 팔아 보태기도 했다. 자칫하면 버려졌을 헌 물품들이 돈이 되어 굶어죽는 아이들의 한 끼 밥이 된다는 것을 체험한 후, 내 것이 아닌 가난한 이웃의 몫을 마구 버려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슴을 치며 뉘우쳐야 할 죄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지금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물품까지도 수거해서 가난한 이를 돕는 곳에 직접 실어다 준다. 몸이 피곤할 때는 너무 귀찮게 느껴지지만, 철없는 행동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보속으로 여기고, 또 하느님께 사랑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 기쁘게 행하고 있다. 무조건 크고 강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행위들만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믿어왔기에, 지금 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나중에 미뤘었던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큰 것을 행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노력이 어쩌면 더 큰 시도가 될 수도 있으리라.

나약하고 미천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느님께 올라가려면 너무 벅차고 힘에 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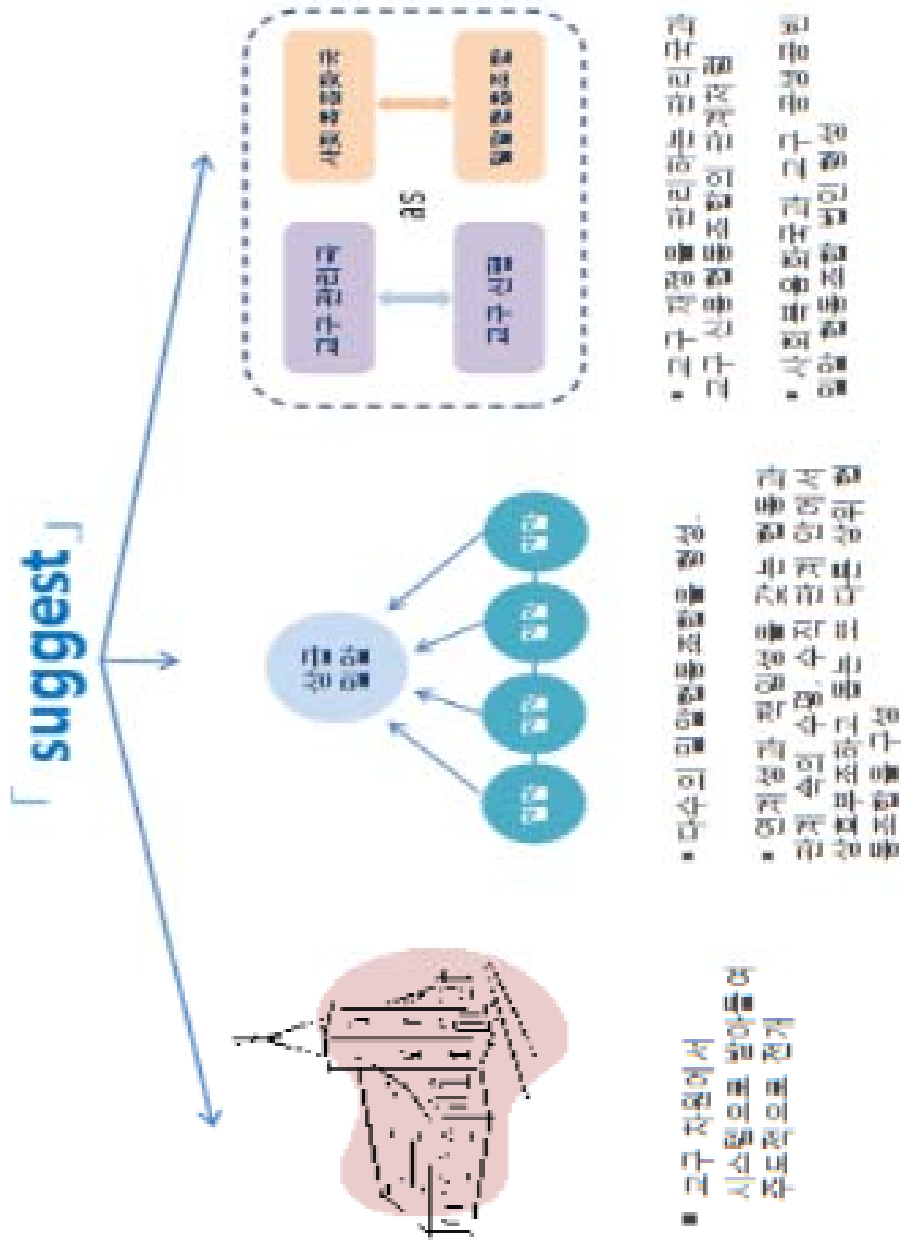
듯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부족한 나의 삶 한가운데로 하느님께서 오시길 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아닐까 싶다. 생명실천운동에도 '아래로부터의 영성'과 '작은 길의 영성'이 필요한 듯 했다. 휴지 한 장을 줍더라도 하느님 사랑으로 행하면 그 작은 행위가 영혼을 구원하는 큰 도구로 쓰여 진다는 소화 데레사 성녀의 말씀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자비의 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의 작은 다짐이 용기 있는 실천으로 확산되길 기원하며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울러 홍보 동영상, '공생공빈, 지상의 진복팔단' 클로징 멘트를 기도 삼아 읊조리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내시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우리 모두는 빈손이었다. 하느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가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더불어 살고, 함께 가난해지는 공생공빈 밀알의 삶! 눈물로 뿌린 작은 씨앗이 열매되어 거두는 날,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환호하며 기뻐할 것이다.'

월간 가톨릭 비타곤 박지현 요셉피나 기자

공생공민 밑받침 협동조합 운영의 연속성, 지속성, 책임성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설문을 위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신앙 공동체의 생명 나눔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솔직한 느낌을 표시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답해주신 결과는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전체 문항에 빠짐없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신앙 공동체 생명 나눔 기부문화 확산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CES 창조역량연구소

연락처 : 070-7860-8058 . E-mail : piaje36@naver.com

II. 다음은 기부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V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기부를 통해서 인류사회적인 공동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기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경제적으로 다소 어렵더라도 기부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변사람들에게는 기부에 동참하기를 아직은 권해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기부를 한다면 계속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기부를 한다면 다른 종류의 기부를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앞으로 기부의 종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자아역량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V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신앙공동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신앙공동체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신앙공동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신앙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신앙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신앙공동체의 역할수행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영적 안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보살펴준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미래가 내가 바라는 대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잘 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하느님이 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하느님과 밀접하며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하느님과의 관계는 나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인생에는 어떤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V.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에 꼭 조연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 1) _____

- 2) _____

- 3) _____

생명으로 통하는 길, 작은 실천 큰 행복!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르 10.17~27)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에게 남는 것은 다 자선으로 베풀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토빗 4.7~8)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7)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야고보 2.14~24)

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의 소명, 마침내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제 소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교회의 품 안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 이 될 것입니다.
(성녀 소화테레사)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붓는 한 방울의 물보다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마더 테레사 수녀)

하느님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그에게 '낮선 이' 란 없다. '이웃' 이란 누구든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아끼워 하는 그 사람이다. (가르멜의 성녀, 에디트 슈타인)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스승은 한 분 뿐이며,
말없이 행한 모든 것이 아버지 마음에 들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함께 살고

함께 가난해지는 공생공빈 밀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함께 걸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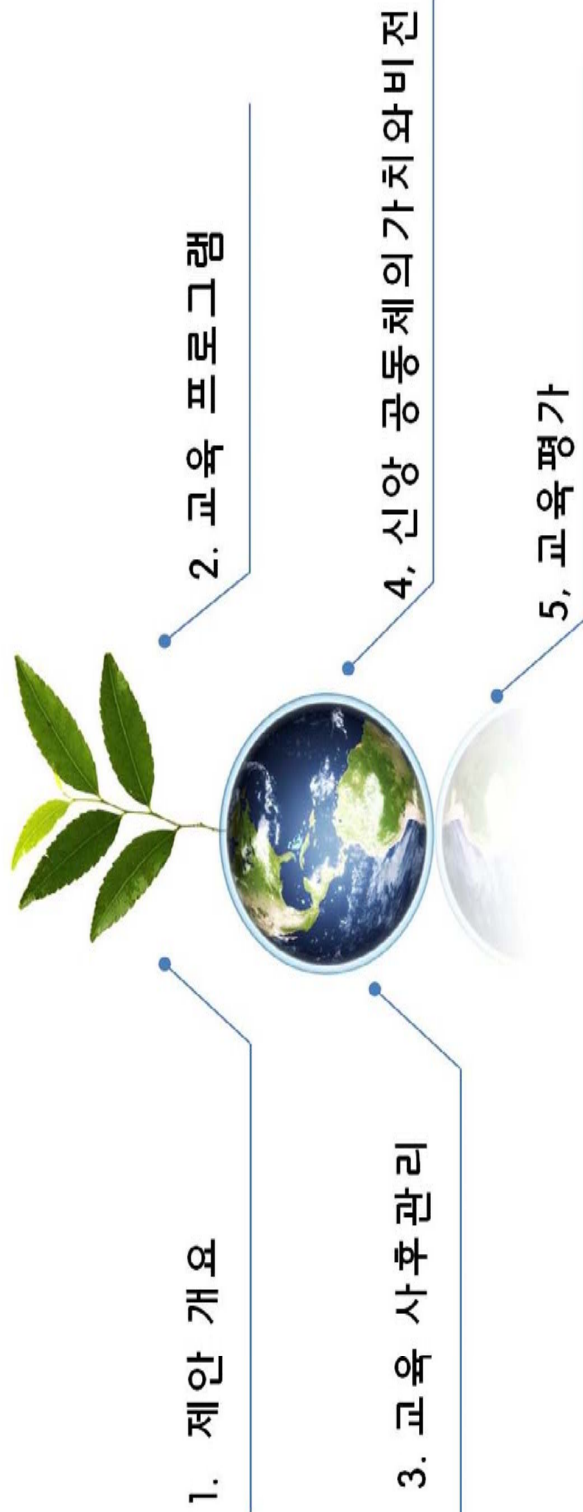
생명과 나눔의 길입니다.

생명 · 나눔기부 문화
사업 프로그램 제안

- 나눔 큐레이터 -

CES 창조역량 연구소

INDEX



Part.1 필요성

생명 · 나눔기부 문화의 필요성

생명 · 나눔기부 문화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공생공존의 정신으로(즉, 자발적 나눔)

우리가 출발해야 하며 은총의 열매(나눔)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Part.1 목적

☞ 생명 · 나눔기부 문화의 목적

생명 · 나눔기부문화의 확산은 신앙인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적 · 물질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신앙공동체
성장과 사회공헌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art.1 생명 · 나눔기부문화

☞ 생명 · 나눔기부 문화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기쁨이다.

☞ 생명 · 나눔기부 문화 확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 ▶ 조합원들의 기본 의무는 나눔(기부)이다.
- ▶ 조합원들의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 조합원들은 **각 분야의 나눔 큐레이터**이다.
(나눔을 창조하며 실현하는 사람)



Part.1 나눔큐레이터

☞ 나눔큐레이터란? (나눔을 창조하며 실현하는 사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자원)을 인정하고 선별하여
생명의 가치를 부여해 전파하는 사람이다.

1. 하나님의 이해 (하느님 모상 Image of God)
2. 자신의 이해 (신앙생활을 통한 자기이해)
3. 이웃의 이해 (이웃과의 상호작용 촉진)

=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다.
= 천국의 꿈을 디자인하는 신앙인이다.



**"하느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이 곧 나눔큐레이터다"**

Part.1 실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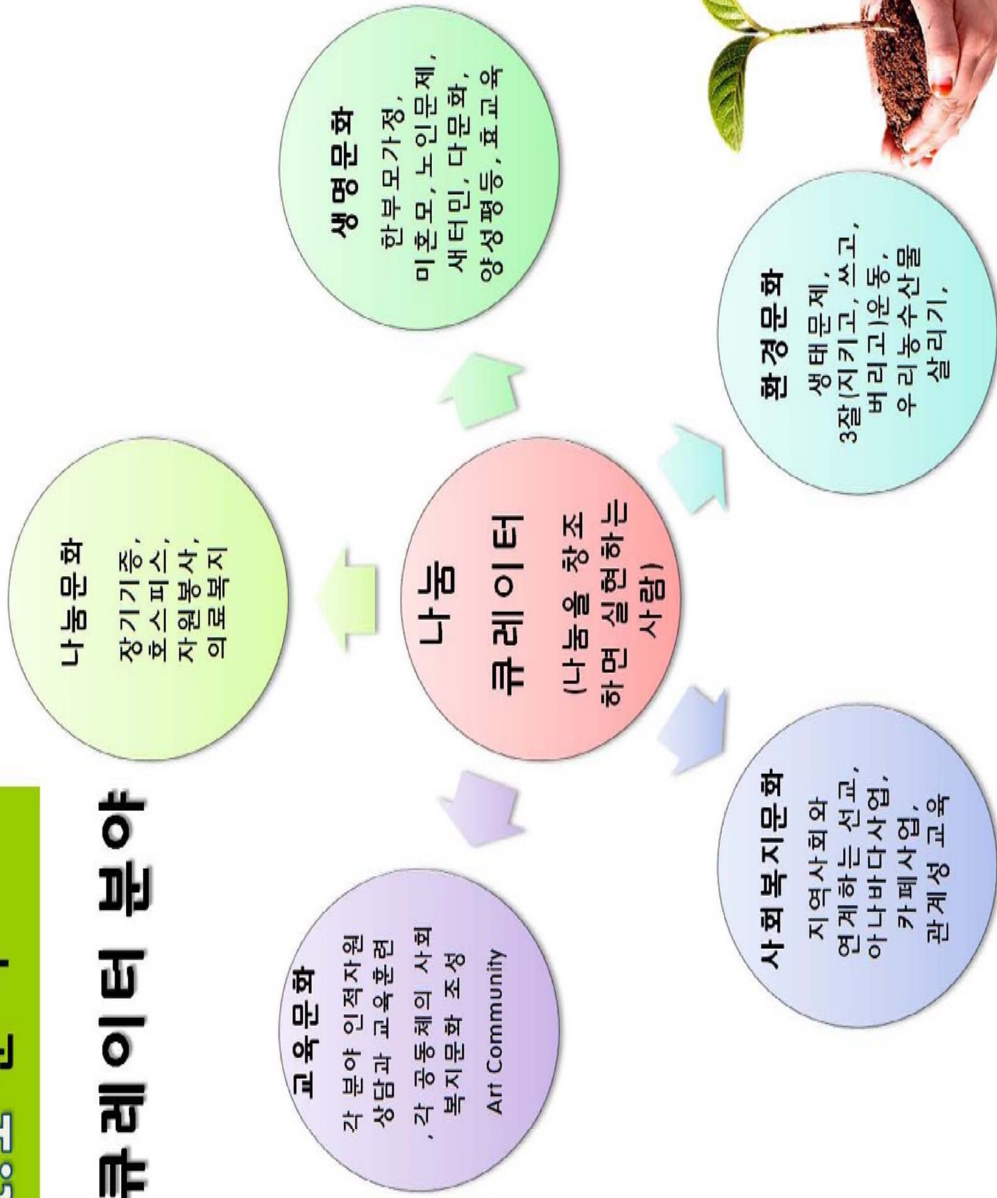
나농큐레이터 실천 목표

- 밀알의 정신으로 신앙공동체 구성원의 영성과 복리 추구
- 인류의 사상과 상부상조 정신으로 환경과 생태계 보존
- 개인의 신앙적 성장을 통한 구원과 사회복음화 운동의 전개
- 가정과 신앙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부문화의 공동선 지향



Part.1 분야

👉 나눔큐레이터 분야



Part.1 특징 및 기대효과

Service-Learning Program



생명 · 나눔기부 문화 확산



자원 성장



새로운 가치 창조



내적 동기부여

성찰을 통한
가치전환

소통과 협력의

생명 · 나눔기부
문화형성



나눔을 통한

행동 변화

나눔의 동기 유발

지속적 나눔교육

= 나눔 큐레이터

Part.2 교육 프로그램



나눔큐레이터

- 나눔을 창조하며 실현하는 사람

열매

- 생명나눔문화
- 기부 (인적자원기부
물적자원기부)

변화

- 동기유발
- 나눔을 통한 행동 변화

밀알

- 성찰
- 가치전환



Service-Learning Program

Part.3 교육 사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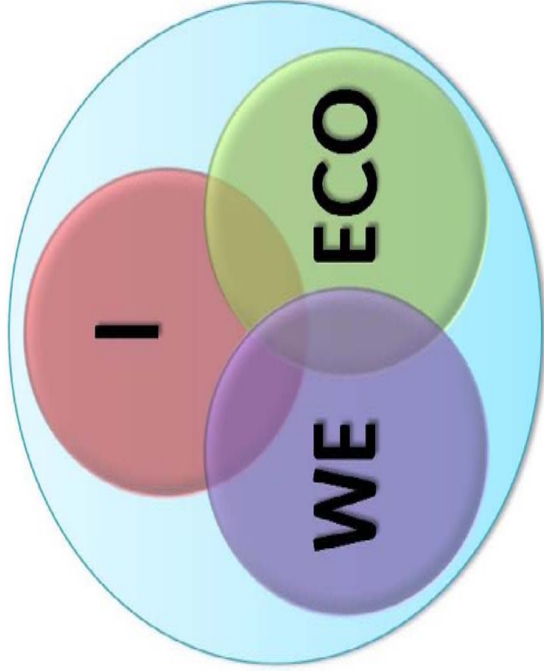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로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 로마서 2장 6절~8절

- 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생명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 인류 집합적 관점에서 능력과 재능을 기부하는 행위는 신앙인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Part.4 신앙공동체의 가치와 비전



- 이웃(WE)을 위한 기부로 시작했지만 자아영적(I)의 성장과 생태환경문화(ECO)가 지속적으로 발전 되어야 한다.

= 결론은

신앙 공동체의 결속과 성장을 가져온다.



Part.4 신앙공동체의 가치와 비전

**"생명 · 나눔기부 문화 운동은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 **어린 시절 부모의 생명 · 나눔기부 행동이 갖는 효과**

성인기 이후의 생명 · 나눔기부 행동에 정적인 방향에서 동적인
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



Part.4 신앙공동체의 가치와 비전

"신앙인의 가치전환은
신앙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 생명 · 나눔기부 행동의 세 가지 메커니즘

1. 자녀의 부모행동에 대한 모델링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가치관에 대한 생활 실천 영성 교육
3. 부모의 적극적인 생명 · 나눔기부 행동이 자녀에게
생명 · 나눔기부행동에 자연스러운 효과성을 가지고온다



Part.5 교육 평가

구분	평가내용	평가방법
교육인식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의 이해 - 교육대상자 변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전후 - 설문지 평가
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표 효과성 - 교육내용의 적절성 - 교육활동의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전과 후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효과 설문지 평가

